

# 정의와 법 이미지의 상징화

최종고 지음 《법과 미술》

동·서양의 미술사를 통해 ‘법과 정의’의 이미지가 구현된 미술작품과 그 흐름을 살핀 책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미학(法美學)적 관점이 시도된 책이다.

법과 미술하면 얼핏 아무런 연관성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대립적이어서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여기기 십상이다. 그러나 예부터 정의로운 것은 진·선·미의 종합체라 여겨져 왔고, 정의와 미는 그만큼 밀착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이 정의를 추구하는 규범이고 미술이 미를 지향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규명은 분명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양에서는 이미 법철학과 함께 법미학이 하나의 학문적 관점으로 형성돼 있다.

저자(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이러한 이론적 기초 속에서 정의와 법이 가시적인 형태로 상징화·조형화된 미술작품들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다.

모두 11장으로 나누어 신화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 조각, 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법과 정의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표현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함무라비법전》《모세》 등 신화 속에



등장하는 법의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들을 통해 법과 정의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출발하고 있는 저자의 시선은 정의화(正義畫: Gerechtigkeitsbilder)라 불리는 독특한 장르의 미술작품들을 통해 동·서양에 있어서 정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됐으며 이는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살핀다. 또한 재판과 형벌, 사법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과 동물을 등장시켜 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 건축물에 구현된 법과 정의의 이미지도 빠뜨리지



미국 국회의사당에 그려진 벽화 <신들과 인간들의 만남>.

않고 분석한다.

서양에서 풍부하게 연구된 자료들을 섭렵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동양의 관점과 소재를 많이 반영한 점이 특히 돋보이는 이 책은

같은 미술작품이라도 ‘법과 정의’라는 독특한 안목으로 조명했을 때 새로운 의미로 부각될 수 있음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시공사 / A5신 / 383면 / 15000원

# 과학과 미술의 경이로운 조화

레오나드 쉐라인 지음 《미술과 물리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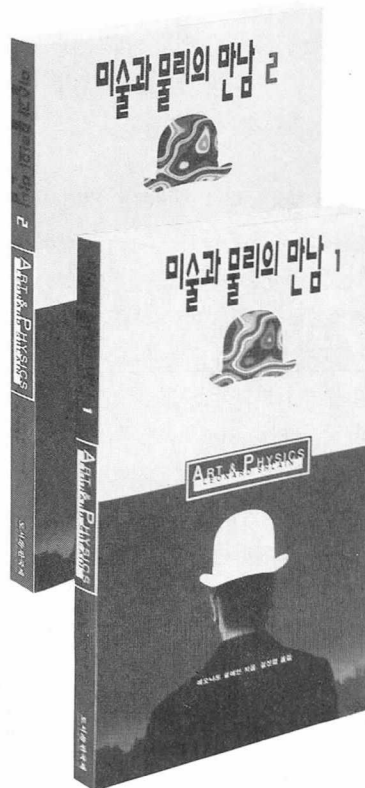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업하고 있는 외과의사인 저자가 완전히 대립되는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미술과 물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조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왔는가를 살핀 책(김진엽 옮김)이다.

저자는 현대 물리학의 불가립성과 현대미술의 불가해한 측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추적, 두 영역의 경이로운 조화를 발견해내고 있다.

아직 언어로 확립되지 못한 대상들을 상징의 언어로 창조한 혁신적인 미술과 상상의 물리학은 둘다 실제세계의 본질에 관한

탐구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며 미술과 물리학자는 실제세계의 단편들을 서로 적합하게 꿰어 맞추는 방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한다는 데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역설한다.

모두 2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현대미술가 앤디 워홀이나 제스퍼 존스까지 각 시대별로 혁신적으로 창조된 미술작품과 그들이 문명사회의 세계관 속에 가져다준 변화들을 살핀다. 또 한편으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현대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과학사를 통해 자기 시대의 실재에 관



한 일반적 개념에 전격적인 수정을 가져온 물리학자들도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저자는 미술가의 상징적 선견이 과학자의 발견을 예견했음을 밝힌다. 가령, 모네와 세잔느가 닥쳐올 과학에서의 지각변동을 직관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탐구열, 다양하고도 풍부한 예증이 돋보이는 이 책은 인류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는 ‘상상력과 혁신’이라는 요소로 가교를 놓아 미술과 물리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판공제 / A5신 / 각 310면 내외 / 각 8500원